

序

인간사회의 역사와 사가의 보학을 연구하는 것은 인류의 도덕이며 지성인의 상식이라 하겠읍니다. 하물며 선현의 말씀에 의하면 동성동본은 백대지친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그 교훈을 본받아 자가의 가승을 상고해야 함은 물론이고 동족지애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겠읍니다. 충절공과보한지도 어언 六十年이 다가오므로 수보하여야 겠다고 수년간을 두고 의론만 분분하던차 불초 족말이 과보를 추진하여 완성하였음은 무상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전원 일심동체가 되어 협조하여 주신 종친 제현에게 총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현재 국토가 남북으로 양단되어 북한에 계신분과 남한에 계셔도 주소 미상으로 인하여 입보하지 못한분과 송오공파와 함께 수보기로 결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연히 송오공파가 분파 수보하겠다고 하여 동보치 못하게 되었음은 실로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금번 보책에는 주소가 기록되어 있으니 동족간에 자주 연락있으시길 바라며 상호간에 이해와 신뢰로서 동족지애를 돈독히 하시와 타성의 귀감이 되어 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입보자 전 세대가 본 보책을 모시어 후손들이 선대의 훌륭한 행적을 알게 하였음은 오랜 숙원을 이룩한 것으로써 번성하여가는 우리 문중에 지대한 생광이라 하겠읍니다.

끝으로 이번 수보사에 각파 대표자들께서 동분서주하며 수고하심과 三개월여를 두고 사적번역 하시기에 수고하여주신 석기 종래 현종에게 감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종친 각위께서



는 금번 수보한 취지를 더욱 이해하시고 우리 강릉김씨 종친간의 융화친목을 돈독히하기
하여 모암공 종친회를 결성코저 하오니 많은 참여있으시길 바라며 일단의 소감을 감히 피력
합니다

一九八二年 壬戌

月

日

慕菴公 十五代孫 仁川 昌卿 삼가 씀

江陵金氏慕菴公派世譜卷之二

一世
始祖闕智

新羅第四王昔脫解
尼師今九年乙丑漢
明帝永平八年春三
檣掛于樹梢白鷄鳴
於下軻公還告王使人
令胤手取抱還宮鳥
獸相隨遂養之冊立為
林因以為國號以太
脫解王曾祖龍城國

二世
子勢漢

或曰熱漢○居西干

三世
子阿道

或曰壽留○官波干

四世
子首留

或曰壽留○官角干

五世
子郁輔

或曰郁部○官角干

六世
子仇道

或曰仇刀又曰俱道
追封葛文王妃述禮
夫人朴氏葛文王伊
非女赫居世五世孫

七世
子末仇

遺史作末屈○儒禮
尼師今八年辛亥晉
惠帝元康元年為尼
伐淦忠正有智王常
訪問政要為後角干
子奈勿即位追尊為
葛文王○妃休禮夫
人金氏

八世
子奈勿

或曰奈密舊譜書以
奈勿尼師今尼師今
者羅時王者之稱故
只書諱晉穆帝永和
十三年丙辰繼訖解
王立四十五年傳于
實聖王安帝元興元
年壬寅三月薨在位
希禮夫人味鄒王女

九世
子卜好

三國遺史作寶海追
尊葛文王按實聖王
恨奈勿王質已於高
句麗思欲釋憾於其
子十一年壬子以下
二年戊子卜好還自

十世
子習寶

一作斯寶○子智證
王追尊葛文王

十一世
子智大露

或云智大老○蕭齊
後廢帝永元二年庚
辰繼紹智王而立蕭
梁武帝天監十三年
甲午七月薨壽七十

十二世
子立宗

或云立尸宗葛文王
○妃息道夫人朴氏

十三世
子多麥宗

東史云多首先 梁
武帝大同六年庚申
繼法興王而立陳宣
帝大建八年丙申八
月薨在位三十七年

十四世
子舍輪

或曰金輪真智王大
建八年丙申代真興
立十一年己亥傳于
真平王七月薨在位
四年葬永敬寺北○
妃知道夫人朴氏父
島公

十五世
子龍春

或云龍壽真平王四
十二年壬午為內省
私臣後為伊淦追封
文興大王○妃文真
太后真平王女朴氏
○鶴林講真智王下

十六世
子春秋

太宗武烈王唐高宗
永徽五年甲寅繼真
德女主而立七年庚
申平百濟龍朔元年
辛酉薨在位八年王
統一三韓時和歲豐

十七世
子文汪

真德王二年戊申隨
武烈王朝唐太宗拜
左武衛將軍武烈王
元年為伊淦三年又
朝唐五年乙丑卒唐
高宗遣使來吊賜祭

十八世
子大忠

或云大壯侍中神文
丙戌以伊淦大壯為
侍中戊子卒

十九世
子思仁

或曰仁思侍中

二十世
子惟靖

或曰為靖史作惟靖
朴氏○公之子周元
為溟州郡王○江陵
然舊譜以開智為始
團別以著分姓之始

二十一世
子周元

金氏分係自溟州公始
祖一從舊譜書之稍示
云